

마크롱 ‘백기’…佛 유류세 인상 6개월 유예

최악 대규모 시위에 굴복
“알맹이 없고 너무 늦었다”
노란조끼 시위는 계속

지난달 17일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정부의 움직임에도 이번 주말 계속된다. 시위대는 정부의 조치가 “너무 늦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의 현 에마뉼엘 마크롱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모양새다.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벌어진 최악의 대규모 시위 사태에 굴복, 애초 내년 1월 시행예정이었던 유류세 인상 조치를 6개월 늦추겠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내년 5월까지 천연가스과 전기요금도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함께 발표될 것으로 추정됐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나라의 단합을 위협에 빠트리면서까지 부과해야 할 세금은 없다”며 빈곤한 노동자층과 갈수록 생활에 쪼들리는 중산층을 위한 조치를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리프 총리는 3주 전만 하더라도 화석연료 사용 축소에 목적을 둔 조세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노란 조끼 시위가 구급대원들과 학생 등 세대와 이념을 넘어 확산하고 폭력도 점차 거칠어지면서 정부로서는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할 수는 없는 처지였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지난 주말 파리에서 벌어진 시위로 130명 이상이 다치고 412명이 체포됐다. 샹젤리제 주변의 상점은 약탈당하고 차량은 불태워졌으며, 개헌문은 낙서가 새겨지고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 프랑스의 100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가세했고, 마르세유의 한 고등학생들은 학교 앞에서 경찰과 충돌까지 했다. 프랑스 관리들에 따르면 이번 시위로 모두 4명이 사망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180도 바꾼 내용의 총리 담화가 나왔지만, 시위대를 달래기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노란 조끼’ 시위대의 대변인 격인 벤자맹 코시는 “프랑스인들은 과자 부스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빵을 원한다”면서 그동안 올려온 유류세를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했다. 시위대 지도자를 자처하는 티에리 파울로 발레르도 AP통신에 시위대는 연료 가격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에 불만을 품고 있다며 “너무 늦었다. 나는 이 정부가 물러나길 요구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도우파 정당인 공화당의 다미앵 아바드 의원도 “너무 알맹이가 없고, 너무 늦었다”며 필리프 총리가 유류세 중단만을 언급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으로 정부 노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시위대는 이제 유류세 인상 철회 요구에 그치지 않고 갖가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 침체 문제와 함께 사회적 불평등, 유럽 내 최고 수준인 납

세 제도, 심지어 현 정부의 퇴진 요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몰린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주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뒤 공개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5일로 예정된 이틀간의 세르비아 방문을 취소한 채 지난 3일 필리프 총리를 만났다. 필리프 총리는 이에 앞서 주요 정당 대표자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시위가 열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쏟아지면서 이번 ‘노란 조끼’ 시위가 어떤 결실을 볼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시위는 소셜미디어상에서 출발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세가 확대, 극우와 극좌 등 이념을 넘어 모든 세대와 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또 전투자은행가 출신인 마크롱이 부자만을 챙기고 빈곤층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불만도 쏟아지면서 갈수록 반(反)마크롱 세력이 집결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모든 바다거북 내장서 플라스틱 검출

3개 바다 102마리 조사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바다거북을 대상으로 한 해양조사에서 한 마라도 빼놓지 않고 내장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합성물질 조각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엑시터대학과 플리머스 해양연구소는 그린피스 연구소와 공동으로 대서양과 태평양, 지중해 등에서 어망 등에 걸려 죽은 7종의 바다거북 102마리의 내장을 조사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해 5mm 이하의 합성물 조각이 모두에게서 발견됐다. 이들에게서 검출된 합성물 조각은 총 800여개에 달했다. 이는 내장 일부만 검사한 것으로 전제로 확대하면 총량은 20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연구

팀은 밝혔다. 합성물 조각 중 가장 많은 것은 섬유로 옷이나 타이어, 담배 필터 등과 로프와 그물 등 해양 장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지중해에서 포획된 바다거북에서 합성물 조각이 가장 많이 나와 대서양이나 태평양보다 높은 오염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샘플 수와 조사 방법론상 해역별 비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이 합성물 조각이 어떤 경로로 바다거북의 내장에 들어가게 됐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오염된 바닷물이나 침전물, 먹잇감이나 식물 등을 통해 흡입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과학저널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Global Change Biology)’에 실렸다. /연합뉴스

中 주요 IT기업에 공산당 조직 강화

고액연봉으로 책임자 모집…외국 기업은 반발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사내 공산당 조직의 건설과 운영을 책임질 사람을 찾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인 디디추싱(滴滴出行)과 중국 최대 검색포털업체 바이두(百度)는 최근 구직자 사이트에 사내 당 조직을 운영할 적임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었다. 이들 업체는 각각 24만 위안(약 3900만 원)에서 최대 48만 위안(약 7800만 원), 56만 위안(약 91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연봉을 제시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외국 기업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당 조직 건설을 확대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2012년 말 집권 후 민간기업 등으로 공산당 조직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펼쳤으며, 그 결과 중국 내 전체 민간기업의 68%, 외국인 투자기업의 70%에 당 조직이 설치됐다. 중국 상법은 공산당원이 3명 이상인 기업에 당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금껏 형식적인 조항으로 남아있던 이 법규가 최근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함께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 둔화로 정부의 정책 노선이 비판받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당 조직의 확장을 통해 사회적 장악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중국 경제 중심지인 광둥(廣東) 성에서는 인터넷 기업들에 당 조직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2015~2016년 EU내 인신매매 희생자 2만500여명”

유럽연합(EU)은 지난 2015~2016년에 EU 역내에서 인신매매 희생자로 공식 등록된 사람이 2만532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적발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치면 이보다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EU는 지난 2016년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희생자 가

운데 3분의 2가 넘는 68%가 여성과 소년였고, 아동도 23%를 차지했다. 또 성(性)적 유린을 위한 인신매매가 절반이 넘는 56%로 가장 많았고, 노동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도 26%였으며 강제 구결이나 장기 적출과 같은 기타 사유가 18%에 달했다. 인신매매 희생자 가운데 EU 회원국 국민이 44%였고, 비(非)회원국이 56%였다. /연합뉴스

부시 前대통령 조문행렬…트럼프도 추모행보

생전 ‘구원’ 잇고 고인 예우
CIA 전·현 수장들 고인 추모
“英 찰스 왕세자 장례식 참석”

지난달 30일 향년 94세로 타계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조문 행렬이 장례식을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앙숙이나 다름 바 없던 ‘부시 가문’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시신은 전날 텍사스 휴스턴에서 워싱턴DC에 도착, 의회 중앙홀에 안치된 뒤 5일 오전까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의 워싱턴DC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을 미 정부 공식 영빈관인 블레이어하우스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한 데 이어 이날 직접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들의 거처인 블레이어하우스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오전 워싱턴DC 국립대성당에서 거행되는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멜라니아 여사와 참석한다. 그러나 국장(國葬)으로 엄수되는 장례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弔詞)를 낭독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의사당 중앙홀에 안치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관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옆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 부시 대통령의 시신은 5일 오전 7시까지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장례식은 5일 워싱턴DC의 국립대성당에서 ‘국장’으로 엄수된다. /연합뉴스

는 않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화당 경선에서 부시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꺾는 과정에서 부시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등 부시 가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린 바 있다. 부시 전 대통령도 생전에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던 중 부시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을 들은 직후 5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조기 계양을 지시하는 등 생전의 ‘구원’을 잇고 예우를 다 하는 모습이다. 이날 부시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의회 중앙홀에는 지나 해스웰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존 브레넌 전 국장, 조지 테

닛 전 국장 등 전·현직 CIA 국장들도 조문하며 CIA 수장으로는 처음 대통령이 된 부시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제41대 미국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새벽부터 수천명의 조문 인파의 줄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CNN방송은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5일 장례식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대신해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